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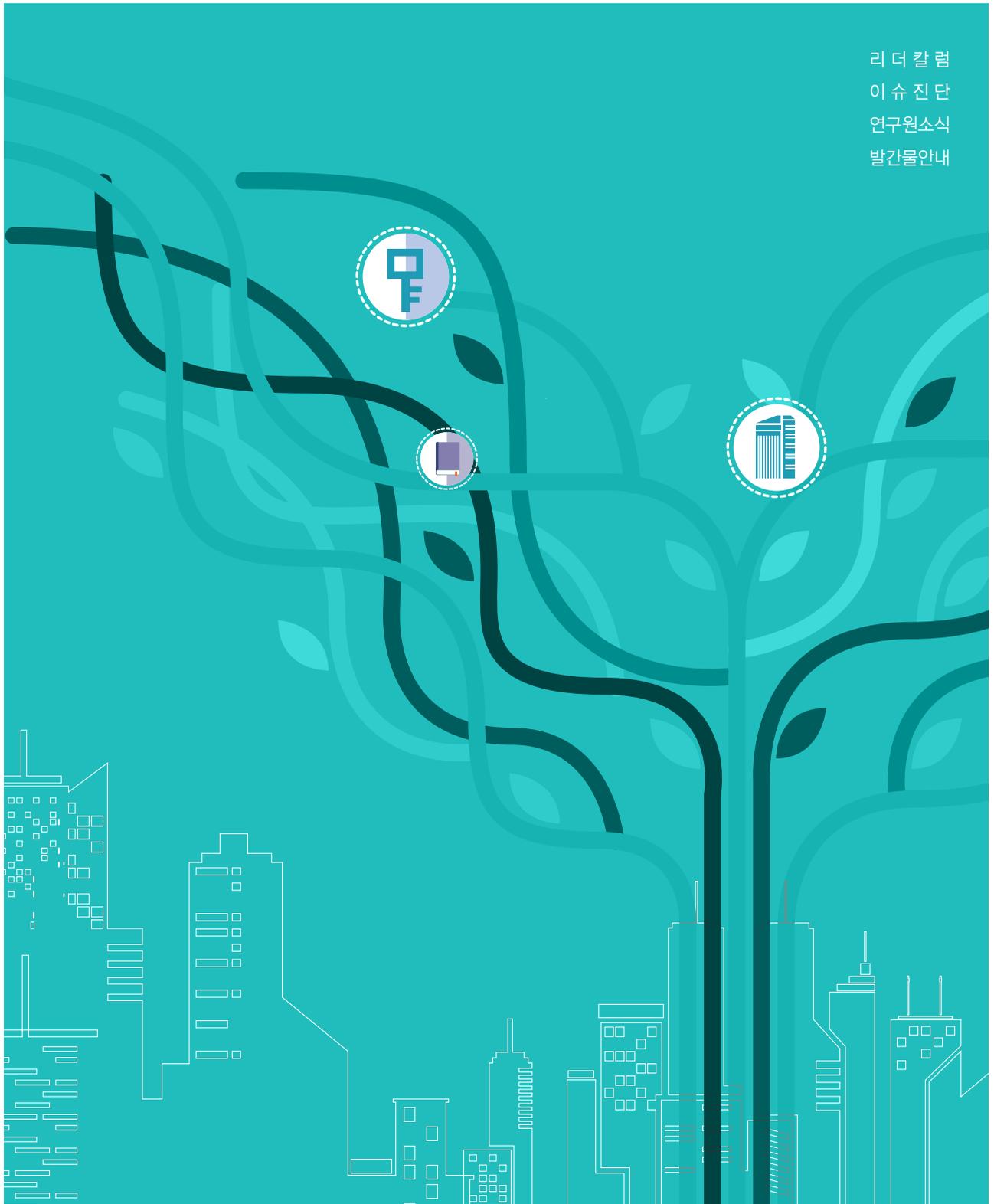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53호 2016년 10월

등록일자 2014.09.24 등록번호 동자 라00076 발행일 2016년 10월 발행(53호) 발행인 신홍균 편집인 서명교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편집·인쇄 경성문화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본원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문건설 관련 정책·제도의 주요 동향과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리더 칼럼
이슈 진단
연구원소식
발간물안내





“역수행주 불진즉퇴(逆水行舟 不進則退)”

역수행주 불진즉퇴(逆水行舟 不進則退) 이 말은 <논어>에 나온 말로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곧 뒤로 밀린다.”는 뜻으로 배우고 묻는 학문(學問)도 이와 같다고 역설했다.

과거와 같이 주변 환경의 변화속도가 잔잔한 호수의 물결 정도라면 우두커니 서서 해찰도 부리겠지만 오늘날의 변화속도는 홍수를 받아내는 급류와 같아서 서 있는 것 자체가 퇴보요 낙오가 된다는 격언일 것이다.

현대사회는 총성 없는 전쟁터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겠지만 두 가지로 집약한다면 용맹한 군사와 전략전술이 뛰어난 장수를 들 수 있다.

생사가 걸린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하면 나는 전략 전술이 뛰어난 장수를 선택할 것이다.

4만여 회원사가 산업전선에서 생사를 걸고 싸우는 용맹한 군사들이라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략전술을 책임지고 있는 장수이며, 리더자인 것이다. 크던 작던 조직의 리더자는 조직의 안위를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매순간 매의 눈으로 주변 정세를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조직을 생존케하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금년 한 해도 크고 작은 업계 현안사항들을 발굴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하는데 진력해주신 연구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2017년도에도 알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4만여 회원사와 수많은 전문건설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희망을 주는 연구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장 송 성 홍

허약한 성장 지속, 건설업 어깨가 너무 무겁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2.9%에서 0.1%p 내린 2.8%로 조정하였다. 올해는 3분기까지 1%미만의 성장이 계속되면서 저성장이 의심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조선과 해운 등 구조조정 대상이 발생하고, 철강 등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저성장의 늪에서 경제성장률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건설투자라는 측면인데, 최근 정책 성향을 고려하였을 때, 건설투자가 향후에도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하리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다.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건설투자는 상반기에 이어 3분기 역시 3.9% 성장하였다. 이는 2분기의 3.1%보다 0.8%p 상승한 것으로 국민경제의 지출항목에서 살펴봤을 때,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6%p로 내수(1.3%)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의 증가는 수출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도 한 몫을 했으나, 민간의 주택중심의 건설 확대가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10%를 넘어설 정도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내년 이후가 될 것이 확실하다. 일단 정부정책적인 면에서 8.25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초과에 대한 국가적 리스크를 건설사의 공급을 막는 것으로 헛지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는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을 근거로 산출되기 때문인데, 현재의 가파른 건설투자도 향후 수주가 받쳐주지 못하면 당연하게 감소한다는 측면이다. 당장 내년 주택건설에 대한 보증조건을 강화한 부분에서 중소형건설사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으며, 공급은 정부의 생각대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친 데 뒷친 격으로 공공부문인 SOC 또한 감소되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수주량은 감소하게 된다.

한마디로 건설업의 어깨가 너무 무겁다. 있던 짐을 지고 가는데, 같이 가던 짐꾼이 쓰러져서 짐을 더 안고 가야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가야할 길이 너무도 멀어 보인다. 추경에서도 소외되었고, 한 동안 지원은 자연스레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건설업을 걱정하는 목소리에는 벌써부터 한 숨이 나온다.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건설업이 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생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좋은 결과에는 좋은 투자가 선행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좋은 결과를 낸 건설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회 그리고 관련기관의 절실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 변화 대처, 안전예산 확보가 필수

10월초 제18호 태풍은 부산과 울산에 잔인한 기억을 남기고 사라졌다. 모두 범람 피해를 심각하게 받았고, 부수적인 피해는 말로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다. 9월에는 경주에 지진이 발생하여, 부상자 23명 등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가져왔다. 미미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수원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등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특히 안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시점이 온 것으로 보인다.

하천의 경우 정부에서는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데, 홍수 등 천재지변에 대비해 재난예방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태풍 '차바'가 휩쓸고 간 울산 태화강에 대한 기본계획은 2000년 초 수립된 것으로 기후가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늦게나마 2017년까지 국가하천수계를 14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0월 현재 20개권역 만이 실제적인 계획수립이 완료된 상태이고, 미착수 권역은 65개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동결해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SOC시설물에 대한 내년 예산(안)을 나누어 살펴보면, 도로·교량의 경우 다소 증액되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노후도가 심각한 철도의 보수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고, 국고지원비율 또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적인 안전 예산의 확보 및 집행은 태부족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거와 관련된 안전 예산은 심각한 수준이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취약계층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주거복지와도 관련성이 매우 높고, 소외계층 보호라는 정책적인 배려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67.7% 감액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세수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늦게나마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20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던 '제 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기반으로 '제 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제야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단계라 대책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통해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하길 기대한다.

“건설산업 미래 생산체계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우리 연구원은 지난 10월 18일, 팔래스호텔 체리룸에서 “건설산업 미래 생산체계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김한수 세종대 교수가 “건설산업의 미래 생산체계 모색: 대담론, 그 논의의 시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설산업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현재 건설산업 생산체계가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미래 생산체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모색하는데 필요한 화두를 제시하였다.
- 주제발표 후 신동우 아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 전재열 한국건설관리학회장, 조훈희 고려대 교수, 소민호 아시아경제 건설부동산부장, 김성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문혁 건설사업정보센터 기획총괄실장,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영운 대한전문건설협회 토공사업협의회장, 윤강철 무영CM 이사,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등 국내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동 세미나는 우리 연구원이 국내의 시장에서 성장 한계에 직면한 한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생산체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한 첫 번째 세미나로서,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으로 건설산업의 미래를 대비하는 일련의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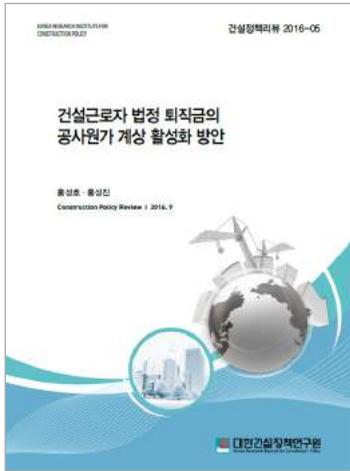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연구원), 용역과제 계약 체결

- 우리 연구원은 지난 10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수자원 마스터플랜 후속사업 재원조달 모델 구축을 위한 금융환경 및 투자사업 사례 분석” 용역과제의 계약을 체결했다.
- 본 연구에서는 타켓시장(모잠비크, 모로코)의 금융환경 분석 및 투자개발형 사업관련 자본구조와 리스크 헤지 등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며, 우리 연구원의 박승국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아 오는 '17년 1월 10일까지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 이를 통하여 수자원 개발 사업시 모로코와 모잠비크에 적합한 사업구조 및 재원 조달 모델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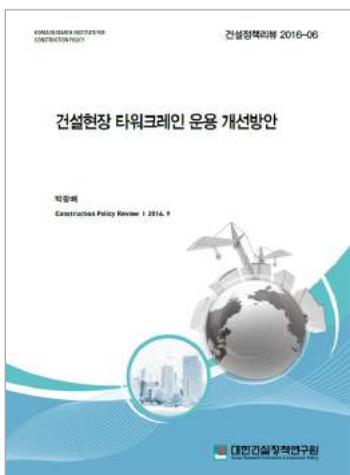


건설 근로자 법정 퇴직금 공사원가 계상 활성화 방안



-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건설 근로자, 정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계상 필요성을 검토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사용자(전문건설업체)는 숙련 기능공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 투입 근로자(일용 근로자 포함)의 10%와 1년 이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라서 1년 이상의 계속근로가 없어 퇴직급여충당금(법정 퇴직금)의 공사원가 계상이 불필요하다는 발주자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건설 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계상 및 운영방향을 제안하였다.
- 본 보고서를 통해 사용주의 법정 퇴직금 지급 부담 해소와 건설 근로자의 직접 및 상용 고용 촉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운용 개선방안



- 본 보고서는 건설현장에서 만연된 타워크레인 운용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 현장에 장비 지급자로서 원도급자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에 '지급장비 부당행위' 신설의 필요성, 원·하도급자 간 '지급장비에 관한 협의체' 구성 등 타워크레인 임차자인 원도급자의 권리와 관리책임 강화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사용자로서의 책임 강화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책임감 제고 방안도 제안하였다.
- 본 연구결과를 통해 타워크레인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제거하여 건설현장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인용, 도용, 재가공, 전재 및 복제, 배포 행위를 일절 금합니다.